

제16회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모집공고



김해시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인제대학교 백인제기념도서관이 주관하는 『제16회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참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1. 사업개요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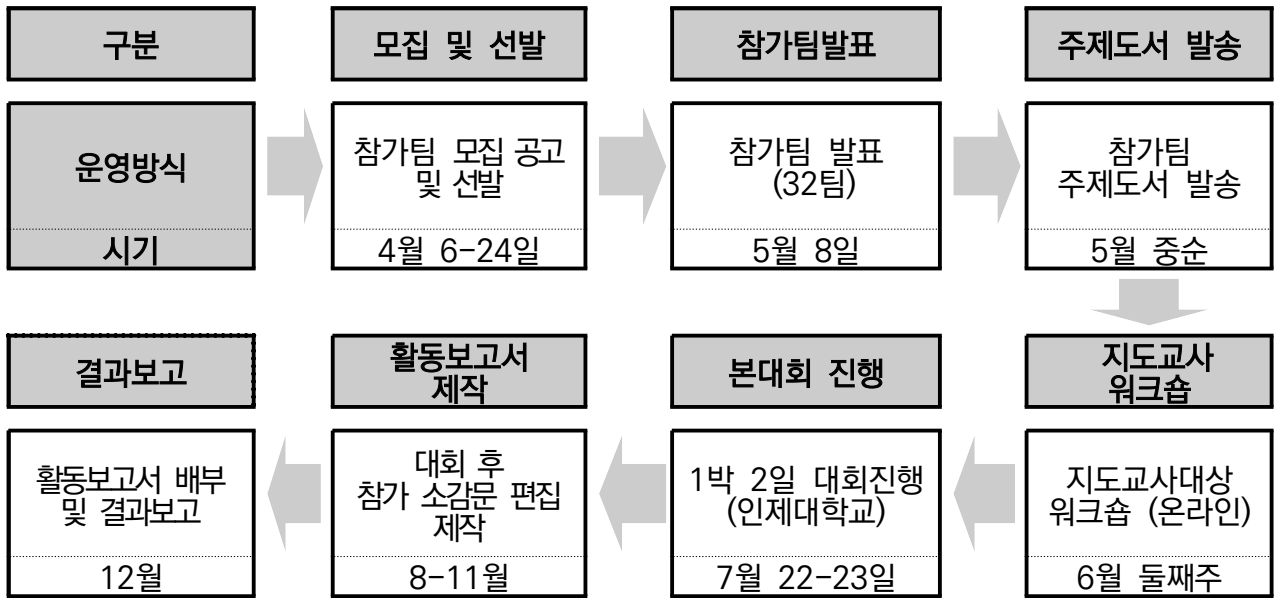
김해시가 2007년 도시 발전의 비전으로 ‘책 읽는 도시 김해’를 선포한 이후 청소년들의 독서 문화 확산과 인문학 소양 함양을 위해 조직한 전국 최초의 비경쟁 방식 토론대회로, 2009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16회 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 행사명: 제16회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 대회일정: 2026. 7. 22.(수) ~ 7. 23.(목) 1박2일
- 참가대상: 청소년(고등학생)으로 구성된 독서단체
- 대회장소: 인제대학교 김해캠퍼스
- 참가인원: 독서단체 32팀 160명
- 주제 및 주제도서 (주제도서 4권 중 택1)
 - 대회주제 :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가?

분 야	도서명	저자	출판사
문학	로기원을 만났다	조해진	창비
인문	필연적 혼자의 시대	김수영	다산초당
사회	실패 빼앗는 사회	안혜정·조성호·이광형	위즈덤하우스
과학	빙하 곁에 머물기	신진화	글항아리

- 지원사항: 참가비 무료, 숙식 지원, 행사 중 보험가입
선택도서 학교별 지원 (1종)

2. 추진절차



3. 신청안내

- 모집기간: 2026. 4. 6.(월) ~ 4. 24.(금)
 - 선발대상: 고교 재학생 또는 그에 상응하는 청소년 4인으로 구성된 팀
* 팀당 1명의 지도교사 참여 필수
 - 선발인원: 32팀 160명
 - 신청방법: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발송(book@inje.ac.kr)
 -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참가동기, 독서단체 소개 (붙임1 참조)
 - 작성방법 : 참가 학생(청소년) 및 지도교사 명단, 주제도서 선택 필수
- * 제출파일명 : 2026_참가신청서_학교명_팀명**

4. 선발심사 및 최종발표

- 심사기준: 참가동기 및 동아리 활동내용, 대회 참가이력, 지역별 신청현황 등 정성평가
 - 심사일정: 5월 초
 - 최종발표
 - 최종 선발팀: 32팀 (교사, 학생 160명)
 - 최종 결과발표: 5월 11일(월)
- * 최종 선발된 참가팀은 소속 학교 공문 발송 및 인제대학교 홈페이지(www.inje.ac.kr) 공지**

5. 지도교사 워크숍 (6월중)

- 개 요: 비경쟁 독서토론 진행 이해를 위한 사전교육 및 준비 과정 공유
- 운영방식: 실시간 쌍방향 교육(온라인 플랫폼 활용)
- 운영일자: 6월 둘째 주 예정
- 참가대상: 대회 참가 32팀 지도교사(총 32명)
- 주요내용: 대회일정 안내, 대회 준비 과정 공유, 비경쟁 독서토론 실습, 대회 의견 접수 등

6. 문의

-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담당자 (055)320-3616~8

붙임 1

참가 신청서 양식

■ 제16회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참가신청서 ■

접수번호 2026 - / 지역 :

학교명					
팀 명					
학교주소 및 연락처	우) /				
	전화번호 :				
지도교사 e-mail				지도교사 휴대번호	
신청 명단	구 분	성 명	학 년	성 별	본대회 참여경험
	지도교사 (○○업무담당)				<input type="checkbox"/> 유 (회 참석) <input type="checkbox"/> 무
	학생				
	학생				
	학생				
	학생				

2. 토론도서 선택 (해당사항에 ✓ 표시해주시오.)

토론도서 선택	1선택	2선택
1. 1일차 선택도서 토론 조편성을 위함	<input type="checkbox"/> 로기완을 만났다 (조해진)	<input type="checkbox"/> 로기완을 만났다 (조해진)
2. 1선택 우선, 1선택 도서 편중 시 2선택으로 조정 가능	<input type="checkbox"/> 필연적 혼자의 시대 (김수영)	<input type="checkbox"/> 필연적 혼자의 시대 (김수영)
	<input type="checkbox"/> 실패 빼앗는 사회 (안혜정 외)	<input type="checkbox"/> 실패 빼앗는 사회 (안혜정 외)
3. 2일차 전체도서 토론	<input type="checkbox"/> 빙하 곁에 머물기 (신진화)	<input type="checkbox"/> 빙하 곁에 머물기 (신진화)

제16회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4월 일

신청자 지도교사 :

(인)

□ 『제16회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참가동기 및 동아리 소개

구 분	내 용
참가팀명	
참가동기	
동아리(팀)소개, 활동내용 (동아리 연혁, 모임 현황 등)	

※ 증빙자료(사진 등) 첨부 시 이 서식을 활용하여 1~2장 내 요약하여 추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주제]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가?

저자와 함께하는 비경쟁 독서토론

제16회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기간: 2026.7.22.(수)~7.23.(목) / 장소: 인제대학교(김해캠퍼스)

참가대상	전국 청소년(고등학교) 독서단체	분야	주제도서	저자	출판사
선발인원	32개팀 (팀구성: 학생 4명, 교사 1명)	문학	로기완을 만났다	조해진	창비
신청기간	2026. 4. 6.(월) ~ 2026. 4. 24.(금)	인문	필연적 혼자의 시대	김수영	다산초당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신청(book@inje.ac.kr)	사회	실패 빼앗는 사회	안혜정 외	위즈덤하우스
발 표	2026. 5. 11.(월) 인제대학교 홈페이지, 개별 통보	과학	빙하 곁에 머물기	신진화	글항아리
문 의	인제대학교 도서관 055)320-3616~8				

※ 참가학생 및 지도교사: 주제 도서 1종, 행사 기간 내 숙식 무료 지원

※ 본 행사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은 행사입니다.



지난대회 홍보영상

주최  김해시 GIMHAE

 책읽는사회문화재단
Book Culture Foundation

주관  인제대학교 INJE UNIVERSITY

 백인제기념도서관
PAIK IN-JE MEMORIAL LIBRARY



모집 공고 보기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김해교육지원청, (사)전국국어교사모임,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 (사)책으로따뜻한세상만드는 교사들

붙임 3

주제도서 및 저자 소개

○ 주제도서 소개

주제도서	주요내용
 <p data-bbox="207 1048 513 1093">로기완을 만났다</p>	<p data-bbox="579 416 1452 707">함경북도에서 생존을 위해 홀로 벨기에로 밀입국한 스무 살 청년 로기완은, 어머니의 시신을 팔아 마련한 돈을 목숨처럼 품에 안고 브뤼셀에 당도한다. 방송 작가인 화자 ‘나’는 자신의 선의가 초래한 비극으로 인해 현실과 마주할 용기를 잃고, 우연히 접한 로기완의 자취를 되찾기 위해 무작정 벨기에로 떠난다.</p> <p data-bbox="579 725 1452 1167">《로기완을 만났다》는 로기완의 일기를 통해 그의 ‘고난의 행군’을 따라가는 동시에, 타인의 고통을 통해 삶의 이유를 다시 모색하는 화자의 구도 과정을 그려낸다. 생존의 기로에 선 로기완과 상처 입은 이들이 연민과 유대를 통해 삶의 의욕을 되찾는 과정은, 인간답게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묵묵한 위로를 전한다. 타인이라는 완고한 벽에 부딪히면서도 한 발짝 더 가닿으려는 진심은, 결코 타인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 역설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마법 같은 순간을 선사한다.</p>
 <p data-bbox="247 1798 470 1895">필연적 혼자의 시대</p>	<p data-bbox="579 1182 1452 1473">2025년 한국의 1인가구는 1,000만 가구를 넘어선 가장 혼한 삶의 방식이 되었지만, 여전히 “왜 혼자 사는가”를 설명해야 하는 존재로 남아 있다. 2019년부터 100인의 1인가구를 직접 인터뷰해 온 김수영 교수의 연구는 이들이 단순히 자유를 좇거나 결혼을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의 한국 사회를 살아온 결과에 가까운 존재라고 말한다.</p> <p data-bbox="579 1491 1452 1933">《필연적 혼자의 시대》는 미디어가 소비하는 화려한 이미지와 통계 너머, ‘불 꺼진 집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혼자 사는 것이 보편이 된 사회의 의미를 탐색한다. 후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1인가구 증가의 구조적 원인을 짚고, 풍족한 자산이나 노후 대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혼자의 그림자’를 직시한다. 나아가 ‘혼자’가 기본이 된 이 시대에, 독립이 고립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 속에서 혼자의 시대를 지나 연결의 시대로 나아가갈 가능성을 모색한다.</p>

주제도서	주요내용
 <p data-bbox="199 913 518 963">실패 빼앗는 사회</p>	<p data-bbox="579 264 1452 656">모두가 실패에서 배워야 혁신과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패에서 배우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한국 사회는 실패에서 제대로 배울 만한 환경과 분위기를 갖추고 있을까? 《실패 빼앗는 사회》는 2021년 6월에 설립된 카이스트 실패연구소가 3년이 넘게 학생들을 비롯해 학교 안팎에서 세대와 분야를 넘나들며 사람들을 만나 ‘실패에서 배우는 법’을 고민하고 연구해 온 결과를 담은 책이다.</p> <p data-bbox="579 674 1452 1014">이 책에서 실패연구소는 ‘실패에서 배우기’가 개인의 의지나 능력에만 달린 문제가 아니라, 이를 가로막는 사회 구조와 문화의 문제임을 드러낸다. 또한 실패의 쓸모를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자의 실패 경험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성찰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실패에서 함께 배우고 서로의 시행착오를 지탱하는 사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p>
 <p data-bbox="199 1664 518 1713">빙하 곁에 머물기</p>	<p data-bbox="579 1070 1452 1305">빙하는 단순히 녹아내리는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지난 80만 년의 지구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냉동된 타임캡슐’이다. 국내 유일의 여성 빙하학자로서 극한의 현장을 누벼온 저자는 차가운 빙하 코어에 기록된 과거의 공기 방울을 통해 인류가 마주한 기후 위기의 진실을 규명한다.</p> <p data-bbox="579 1323 1452 1765">《빙하 곁에 머물기》는 원시 지구부터 농업의 발달과 산업화, 그리고 핵실험 시기를 거쳐 오늘날까지 인류가 지구에 남긴 흔적을 가로지르며 빙하의 언어를 읽어낸다. 현장에서 채취한 데이터는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속도가 전례 없는 위기임을 경고하며, 방관과 체념을 넘어 우리가 마주한 진실을 대면하게 한다. 나아가 편견과 물리적 한계를 넘어 현장에서 쌓아 올린 연대의 감각은, 막연한 공포 대신 일상의 실천이 어떻게 구체적인 변화의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p>

○ 저자 소개

성 명	주 요 내 용
 조 해 진	소설가. 2004년 작품 활동을 시작해 사회의 경계에 놓인 이들의 삶을 섬세하게 비추며, 타자의 고통과 연대의 가능성을 그려왔다. 《로기완을 만났다》, 《단순한 진심》, 《완벽한 생애》, 《빛과 멜로디》 등의 장편소설과 《환한 숨》, 《빛의 호위》, 《여름밤 해변의 무무씨》 등의 소설집을 발표했다. 신동엽문학상, 이효석문학상, 대산문학상, 동인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김 수 영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에서 사회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연구하며 노숙인, 플랫폼 노동자, 1인가구 등 사회 경계 밖으로 밀려나는 이들의 삶을 추적해 왔다. 저서 《디지털 시대의 사회복지 패러다임》으로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미래 사회의 위험과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는 ToSoPo(Tomorrow's Social Policy) 네트워크를 이끌고 있다.
 안 혜 정	카이스트 실패연구소 연구조교수. 사회심리학 박사. 교훈이 있는 실패 사례를 발굴해 지식 콘텐츠로 만들고, 사회·문화심리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실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연구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행정안전부 실패박람회 <실패의제연구>를 계기로 민간기획단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교육기관과 공공·민간기업의 실패 사례의 발굴과 자산화를 위한 자문을 이어가고 있다.
 신 진 화	빙하학자. 빙하에 기록된 기후를 우리 언어로 읽어내는 지구 언어 번역가. 프랑스 그르노블 알프스대학과 IGE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캐나다 앨버타대학을 거쳐 현재 극지연구소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2023년 그린란드 국제 공동 심부 빙하 시추 프로젝트(EastGRIP)에 한국 대표로 참여했다. 빙하기와 홀로세의 이산화탄소 변동을 추적하며, 여러 매체에 기후 위기와 지구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